

지역 매아리

고창경찰서, 바른직장문화 정착 청문활동 강화 '총력'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연말 연시 공직가장 특별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무위반예방 청문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원들은 이시기에는 모임이 잦은 만큼 발생하기 쉬운 음주운전 비위발생 사례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데 이럴 때 일수록 본인 스스로 절제하고 청렴성을 잃지 말자고 다짐했다.

청문감사관 송태석 경감은 "조직문화 개선에 위해서는 관리자가 술선수범을 강조하고 자기관리와 함께 동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직원 모두가 비위에 연루되는 일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직원들은 의무위반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서로 독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비위예방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김성재 서장은 "가족, 동료와 행복한 연말연시를 위해 음주운전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들이 합심해 달라"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정읍시민의 날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정읍 시민들의 화합 한마당인 '제24회 정읍시민의 날·2018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 10일 10시부터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유진섭 정읍시장, 이수혁 국회의원, 유성엽 국회의원, 최낙삼 시의회회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사회 단체 등 3,000여명의 시민과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행사의 기념식은 정읍 시립국악단의 화려한 식전공연으로 시작하여 정읍시민의 장 수여, 자랑스런 체육인상 수여, 기념사, 축사, 시민의 날 노래 제창 정읍시 최고권위의 상인 시민의장 시상과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의 자랑스런 체육인상 시상이 진행되었다.

시민의 장을 수여받은 수상자 들은(문화장 김호근, 체육장 송현철, 효열장 서한석) 한 목소리로 앞으로도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 봉사에 헌신할 것임을 수상 소감으로 밝혔다.

기념식 이후 치러진 2018 한마음 체육대회는 ▲축구 ▲배구 ▲게이트볼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고리걸기 ▲투호 ▲이벤트플레이 등 8개의 종목에 23개 읍면동 1,500여명의 선수단이 출전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며 선의 경쟁과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업인이 행복한 살기좋은 부안'

농업인의 날 기념 부안농업인 대동한마당 성료

부안군농업인단체연합회(연합회장 박용석)는 지난 9일 부안스포츠파크에서 농업인 2,000여명과 권익현 부안군수, 민주평화당 김중회 국회의원, 이한수 부안군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농업인의 날 기념 제19회 부안농업인 대동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열었다.

식전행사는 농악시연으로 신명나는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이어 행해진 기념식에서는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한 우수농업인 12명과 유공공무원 3명에게 군수상을 표창했고, 부안군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 5명에 대하여 표창 및 감사패를 수여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울려 퍼진 가을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이겨낸 농업인들을 다독이며, 농업인이 행복한 살기좋은 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제19회 부안농업인 대



부안군농업인단체연합회가 지난 9일 부안스포츠파크에서 제23회 농업인의 날 기념 제19회 부안농업인 대동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열었다.

동 한마당 행사에서는 전통 놀이와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이 펼쳐져 한해의 피로를 풀고 즐길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며, 귀농인가공식품전시회, 별꿀·유유시식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농업단체 관

계지는 "이번 행사가 부안군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큰 구심점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의미를 잊지 않고 부안군 농업발전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농업생명 식품산업 살려 대한민국 고창시대 만들어가자"

고창군 농업인의 날 성료... 농업인 등 2000여명 참석

농업인단체고창군협의회(회장 노창득)가 11일 '제20회 고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고창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자긍심 함양을 위해 13개 농업인 단체가 협력해 구성한 농업인단체고창군협의회(이하 농단협)에서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군의장을 비롯한 의원 및 기관사회단체장, 농업인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11월 11일은 국가에서 제정한

농업인의 날 법정기념일이며, 고창군은 매년 기념일에 맞춰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건설에 기여한 유공 농업인에 대한 군수 표창과 공로패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11m 길이의 오색 가래떡을 전시하고 커팅하는 퍼퍼먼스를 가져 11월11일은 가래떡 먹는 날임을 기념하는 특별행사도 진행됐다.

부대행사로도 고창쌀을 이용한 맥주와 막걸리 시식과 고창지역

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각되는 멜론과 고구마 품평회, 국내의 농·특산물 비교전시, 주요작목 및 가공품전시 등 다채롭고 특색 있는 내용들로 구성된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유기상 군수는 "특히나 어려웠던 올 한해 기상여건 속에서 풍년농사를 이뤄낸 농업인들의 땀과 노고에 대해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며 "농업생명 식품산업을 살려 대한민국 고창시대를 만들고 군민의 꿈과 열정이 보답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함께 꿈을 실현해가자"고 격려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내장산 단풍객 맞아 베리류 홍보·시음행사 가져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재권, 이하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내장산 집단시설지구 내에서 운영 중인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에서 정읍 베리류 홍보와 시음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정읍 내장산 단풍철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읍에서 생산된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블랙베리, 아로니아 등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은 많은 일조량과 온난한 기후, 비옥한 토지, 풍부한 물 등으로 베리류 생산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갖춰져 있으며, 현재 정읍에서는 2,047농가(482ha)가 재배하고 있다. 특히 정읍에서 생산되는 베리류에는 눈 건강과 내장지방 억제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 농도가 높다고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반도 첫수도 고창갯벌 토크콘서트' 큰 호응

람사르고창갯벌센터 개관 기념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람사르고창갯벌센터 개관을 기념한 '한반도 첫수도 고창갯벌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지난 8일 람사르고창갯벌센터에서 열린 행사는 지역주민, 관계기관, 전문가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의 임시운영을 마치고 주민들을 위한 갯벌보전을 약속하며 출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3년간의 생태교육, 모니터링, 생태여행, 주민사업 등의 성과를 보고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갯벌 보전과 주민갯벌학교 운영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유석대 역사교육과 조법종 교수는 '해양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주제로한 기초강연을 통해 역사적으로 마한의 모로비리국, 백제 도량부리현을 거치며 해양역사를 만들어온 고창을 재조명했다.

특히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가치와 소금문화의 원류로서 고창 지역 브랜드의 세계화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의 주제인 고창 갯벌 브랜드 만들기 일환으로 '고창갯벌 발상'도 선보였다.

고창에서 생산된 우수한 바지락을 이용해 바지락 샐러드, 바지락 술찜, 바지락 크랩차우더, 바지락 조림 등 11가지 바지락 요리를 선보였으며, 바지락 상품의 다양화와 고급화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다.

향후 하천바지락 전문식당, 두어 어



촌 6차 사업과 연계하여 상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토크 콘서트 : 고창갯벌 브랜드를 말하다'에서는 도시와 자연연구소 제종길 소장(전 안산시장)의 진행으로 주민, 브랜드 및 생태관광 전문가, 기업(상하농원), 행정, 관계기관 들의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정토고 고창군 부군수는 "이번 토크 콘서트를 통해 청정갯벌의 보전, 지역의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행정의 정책적 수립과 예산지원, 전문가들의 디자인 및 마케팅 홍보 지원, 생태관광과 연계한 수익 구조 창출이라는 원칙과 약속에 동의하였고 이를 통해 고창 갯벌만의 수산물 브랜드 만들기 에 다 같이 협력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해양과 수산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갯벌생태 관광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전국 최고의 생태관광 명소이자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갯벌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김장용 쓰레기 특별 수거 실시

내달 19일까지 무상 수거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김장쓰레기 특별수거 기간으로 정해 김장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가정과 음식점의 김장과 관련된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을 덜어 주고, 무단으로 버려지는 김장쓰레기를 방지하여 깨끗한 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배출방법은 소금이 절이지 않은 배추·무 등 채소를 다듬은 겉잎과 뿌리 등 김장관련 쓰레기는 속이 보이는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그러나 소금이 절인 김장용 배추와 양념류 등은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시는 "무상 수거 기간에 김장쓰레기 배출 시 일반 음식물쓰레기 또는 생활폐기물을 혼합하여 배출하거나, 검정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은 무단투기로 간주하여 수거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20일부터는 종전과 같이 발생한 김장쓰레기는 음식물 전용용기(봉투) 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쓰레기는 반드시 배출시간(일몰이후)을 준수하여 내 집 앞에 배출해줄 것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김장쓰레기는 퇴비, 가축사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구입 시 구입처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미리 제거한 후 구입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angsanmyeongju.